2022년 / 7월 2주차

연구원 소식

2022년 지역출판산업활성화 사업
전남·북 독서 리더를 위한 <역사> 교육컨텐츠 강좌 안내

전주 지역사 재조명

-여지도서(輿地圖書)를 중심으로-

강사 : 변주승 교수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연주 : 양정오(플룻), 변재홍(첼로) *Elgar - Salut d' amour **Claude Bolling - Irlandaise ***티파니에서 아침을 - 문리버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인생의 회전목마 외
*일정 : 07월 16일(토) 16시 *장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세부 순서
16:00~17:00 : 강좌
17:00~17:30 : 연주회
17:30~18:30 : 토론 및 질의 응답

연구원 새 식구 소개

이번 주에도 우리 연구원에 식구가 생겼습니다. 연구원 정경명 이사(유일의료재단 이사장)께서 용인 지부의 새 식구를 소개해주셨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백용선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백용선 회원은 용인시 처인구에서 한국지엠명지지정서비스(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원 16주년을 맞이해 열릴 2022년 회원의 날에 지부 활동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한 용인 회원들과 함께 인사 나눌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연구원 가족들의 마음을 모아 백용선 회원님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아울러 서정안 회장님을 필두로 코로나19의 광풍속에서도 연구원 회원 배가 운동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용인지역 회원 여러분께 큰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오는 6월 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이 현장 인터뷰를 비롯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을기록화사업 보고서에 삽입될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거나 자료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해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육신의 죽음으로 國魂을 살린 이 - 1907년 7월 14일

1907년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 3명의 특사가 혜성처럼 등장한다. 당시 일본 외무대신은 한성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를 전달했다.

"이곳(헤이그)에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 전 판사 이준, 전 공사관서기관 이위종 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상설은 대한제국 황제를 알현한 후 4월 20일경 이준과 함께 한국을 출발하여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러시아로 들어가 이위종과 만나 세 사람이 함께 길을 떠나 6월 25일 이곳에 도착하였으며 그들은 대한제국 황제의 전권위임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계속 정탐하는 중임"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세 명의 헤이그 특사는 이렇게 네덜란드에 첫 발을 내딛었다.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에 무관심하기만 했던 네덜란드에서 일제가 행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소리 높였던 세 명의 조선인 가운데 한사람인 대한제국 전직 판사 이준.

1859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난 이준은 1884년 함경도시에서 장원 급제 했고 1895년 법관양성소에 들어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다. 이준은 이듬해 한성재판소 검사보에 임명되었으나 같은 해 2월, 아관파천이 일어나 일본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이후 이준은 서재필을 만나 협성회를 조직하여 구국 운동을 전개하고 독립협회에 가입한다. 1904년 8월 일제가 송병준 등 친일파들로 하여금 일진회를 조직하여 매국활동을 시작하게 되자 이준은 같은 해 12월 12일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윤하영, 양한묵 등과 함께 공진회를 조직, 동회의 회장에 선임되었다. 그는 회장으로서 반(反)일진회 투쟁을 전개하다가 일제에 의해 황해도 황주 철도에 유배되기도 했다.

1906년에는 국민교육회를 조직해 구국운동을 펼치고 전 재산을 동원해 돈화문 근처에 야학인 보광학교를 설립, 청년계몽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오상규, 유진호, 설태희 등과 함께 고향인 함경도에 한북흥학회를 조직해 함경도 지방의 애국계몽운동과 교육구국운동의 발흥에 큰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3월 대한자강회에 가입해 애국계몽운동을 활발히 전개했으며 안창호, 김덕기, 이동녕 등과 함께 비밀결사 신민회를 조직하여 장기적인 구국운동을 추진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를 들은 이준은 고종 황제에게 찾아가 헤이그로 특사를 파견할 것을 건의, 고종의 동의를 받게 된다. 고종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기까지는 여러 곡절이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과거 특사로 파견된 적이 있었던 이용익의 죽음이었다. 고종은 당초 1906년 8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만국평화회의 때도 이용익을 파견하려 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만국평화회의가 1년 가까이 연기됐고, 해외를 떠돌던 이용익이 1907년 초 갑작스레 사망하는 바람에 특사 외교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대안으로 급히 만들어진 카드가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었다.

먼저 출발한 이상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빼째르부르그에 도착하여 러시아 공사 이범진을 만났다. 이범진은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전이 박탈당하였으나 세계정세를 관망하기 위하여 귀국하지 않고 그곳에 체재하고 있었다.

한편 이준은 1907년 4월 22일 가족들과의 고별의 아픔을 간직한 채 서울역을 떠나 부산항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으로 가 그곳에서 이상설과 합류했으며 5월 21일 시베리아 철도편으로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여 6월 4일 빼째르부르그에 도착했다.

빼째르부르그에 도착한 이준과 이상설은 이범진, 이위종 두 부자 만나 그간의 경과에 대하여 토론하며 [장서]의 공고사(控告詞)를 불어로 번역한 후 6월 19일 그곳을 출발하여 25일에 만국평화회의 개최지인 헤이그에 도착했다.

6월 28일 <장서>와 그 부속문서인 <일인불법행위(日人不法行爲)> 책자를 40여 참가국 위원들에게 보냈으며, 다음날 러시아 대표이며 평화회의 의장인 넬리도프 백작을 방문하였으나 네덜란드 정부의 소개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만나지 못했다. 이어 6월 30일에는 부회장인 네덜란드 전 외무대신 뽀포로를 방문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이어 네덜란드 외무대신 테츠(M.VanTets)에게 서한을 급송하여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평화 회의에서의 발언은 어렵다는 통지를 받아 거절당하고 말았다.

1907년 6월 15일부터 1개월간 개최되었다. 당시 참가국은 46개국이고 대표는 약 247명이었다. 이상설을 비롯한 3명의 특사는 만국평화회의 의장에게 고종의 친서와 신임장인 공고사를 제출하고 한국의 대표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전개하려 하였으나 일본과 영국대표의 노골적인 방해로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준을 비롯한 특사단은 일제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한국의 입장과 일본의 부당성을 웅변으로 호소했다. 각국 신문기자들이 모여들자 그들에게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설명하였으며 <평회회의보(CourrierdelaConference)>에 [장서]의 전문을 게재 했다.

7월 9일에는 협회 회합에 귀빈으로 초대되어 연설 할 기회를 얻어 이위종으로 하여금 불어로 연설하도록 했다. 이위종의 열성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각국 대표들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한국의 청원에 끝내 공감하지 않았다.

며칠 후 이준은 헤이그에서 지병이었던 뺨 종기가 도져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에는 이견이 많은데 일설에는 일제에 의해 독살당했다고도 한다. 1907년 7월 18일자 대한매일신보에서 "의사가 자결"이라는 제목으로 이준의 자결을 호외보도한 것을 근거로 할복자살이라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종기가 스트레스성 난치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울분으로 인한 병사가 적확한 사인일 듯 싶다. 한편 일본 통감부는 8월 9일 이미 세상을 떠난 이준에게 궐석재판을 통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1907년 7월 14일,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한 조선인이 일제의 협박으로 체결된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외치다 숨을 놓았다.

헤이그로 달려간 3인, 왼쪽부터 이준·이상설·이위종